



"바람도 타향에서 맞는 바람이 더 차고 시리다"

뜻: 똑같은 힘든 일이라도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겪으면 훨씬 더 서럽고 힘들게 느껴진다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고생 · 객지 · 서러움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바	람	도	↓	타	향	에	서	↓	맞	는	
바	람	이	↓	더	↓	차	고	↓	시	리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바	람	도	↓	타	향	에	서	↓	맞	는	
바	람	이	↓	더	↓	차	고	↓	시	리	다

3단계 혼자 쓰기 1: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바르다] [태풍이] [모래] [바람이] [더] [차가] [시리다]

웹에서 보기

